한국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의의

金 光 載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머 리 말
2. 한미공동작전의 전개와 변천
3. 한미공동작전의 의의
4. 맺 음 말

1. 머 리 말

1910년 日帝의 韓國倂呑과 함께 면면히 이어져온 韓國獨立運動은 일제강점기의 3·1獨立運動을 거쳐 大韓民國 臨時政府(이하 臨政)의 수립을 보게 되었다. 전민족적 독립운동지도기관으로 출범한 臨政은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 초창기의 위상이 약화되어 갔다. 한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임정은 그후 中日戰爭을 거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그리하여 1940년 9월 17일 임정 산하의 國軍으로서 韓國光復軍(이하 광복군)이 창설되고, 아울러 1941년 12월 太平洋戰爭 발발후 朝鮮民族革命黨(이하 民革黨) 등이 참여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임정의 위상은 전에 없이

강화되었다.

1940년대 전반기 對日戰 참여를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던 임정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광복군의 군사활동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광복군의 군사활동 가운데에서도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에 실행된 韓美共同作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광복군과 美國 戰略諜報局(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의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으로 OSS와의 합작하에 광복군 대원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훈련시켜 한반도에 투입, 첩보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장차 對日戰에 참전한다는 원대한 계획의 실행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훈련을 마친 요원들이 한반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때문에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은 일본의 항복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럴 경우 광복군 요원들이 국내에 파견되어 연합국의 대일작전 수행에 협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임정 혹은 광복군도 연합국의 전후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다. 극단적인 경우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국내진입작전 활동 자체를 신화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연구사 및 문제점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광복군의 활동, 특히 OSS와의 공동작전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학문적으로 검증되기도 전에 미화되어 왔다. 특히, 해방 직후 간행된 독립운동사 관련 통사류에서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蔡根植의 『武裝獨立運動秘史』(대한민국 공보처, 1949), 애국동지원호회의 『한국독립운동사』(1956)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통사에서는 한미공동작전이 '本國上陸作戰' 혹은 '낙하산부대'의 훈련이었다든지 1945년 7, 8월에 낙하산부대를 선두로 국내진공을 계획하였다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주장들에는 당시의 맥락에 근거한 사실 이

해나 평가라기보다는 해방을 주체적으로 개척하지 못한 울분, 회한, 보상심리 등이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제6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1] 물론 이 저서는 광복군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던 광복군 출신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미공동작전에 대해서는 집필 당시 자료의 한계로 관련자의 증언이나 회고 등을 집대성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1차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지금까지 선학들의 광복군 관련논문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2] 그러나 한미공동작전에 한정하여 볼 때, 이들 대부분은 당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위의 통사류나 관련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동소이한 내용과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당시 임정 및 광복군이 처하고 있던 중국·미국 등을

---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6권, 독립군전투사(下), 1975.

2)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관련된 논문은 수십 편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그 주요한 것들만 제시하고자 한다.
朴成壽, 「광복군에 대하여 -소위 '準繩九項'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3, 1967(『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에 「광복군과 임시정부」로 재수록됨).
秋憲樹, 「중일전쟁과 임정의 군사활동」, 『아세아학보』 11, 1975.
李鍾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李延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盧景彩,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李炫熙, 「중경임정과 한국광복군연구(下) -그 활동과 국내진입작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1992.
趙一文, 「광복군의 조직과 대일선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논총』, 영남대출판부, 1988.
金祐銓, 「韓國光復軍과 美國 OSS의 共同作戰에 관한 硏究」, 『朴永錫敎授華甲紀念論叢』, 1992.
趙恒來, 「重慶時代의 大韓民國臨時政府와 韓國光復軍」,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歷史的 照明』, 국가보훈처, 1997.
朴成壽, 「한국광복군의 正統性 問題」, 『三均主義硏究論集』 제21집, 三均學會, 2000.
김행복, 「한국광복군의 군사활동과 그 의의」, 『軍史』 제41호, 2000.

중심으로 한 냉혹한 국제환경 속에서의 임정의 고투상을 외면하고 주체적인 노력만 강조함으로써 임정 및 광복군 역사의 객관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임정 및 광복군의 고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韓詩俊에 의하여 이루어졌다.[3] 그의 저서는 광복군의 전반적인 역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학문적 연구업적이기도 하다. 곧 실증적 작업을 통해 광복군에 관한 여러 이견과 누적된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공동작전과 관련하여도 그는 광복군의 활동 서술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미공동작전이 시작되는 시기, 대략적인 훈련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는 OSS문서 등 미국측 관련문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한미공동작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광복군의 군사적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합작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계기와 경위, 훈련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합작훈련에 대한 임정내부 각 세력의 입장, 중국 및 미국정부·OSS측의 입장이나 의도, 또한 해방 직후 한미공동작전을 둘러싼 임정 및 광복군 지도부, 나아가 OSS의 동향, 특히 해방 이후의 작전변천 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광복군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었다는 저서의 특성상, 또 당시의 자료적 한계로 한미공동작전의 실상과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韓詩俊, 『韓國光復軍 硏究』, 一潮閣, 1993. 그외에도 韓詩俊은 한국광복군 관련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韓國光復軍의 創設 背景」, 『東洋學』 2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2; 「韓國光復軍과 中國軍事委員會와의 關係」, 『국사관논총』 제47집, 국사편찬위원회, 1993; 「大韓民國臨時政府와 韓國光復軍」, 『吳世昌敎授華甲論叢』, 1995;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 한국광복군동지회 주최 한국광복군 창설 59주년 기념학술회의자료집, 1999년 9월; 「한국광복군과 연합군의 공동작전」, 『중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2000.

따라서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선학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4] 그럼으로써 임정 및 광복군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자의 연구가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연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전한 자료의 부족으로 훈련과정 각 단계마다의 세밀한 내용을 추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광복군 제3지대의 한미공동작전 문제에 대하여 위의 OSS문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였다. 또한 한미공동작전을 둘러싸고 임정내부의 갈등을 韓獨黨과 民革黨, 新韓民主黨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도 임정내 소수세력이었던 朝鮮民族解放同盟이나 朝鮮革命者聯盟 등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한독당 내부에서도 각 계파별로 한미공동작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한미공동작전을 통해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찰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깊은 천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제한점들은 향후 새로운 관련 史料 -특히 미국내 OSS문서, 중국 국민당정부 문서- 를 보다 많이 발굴·분석함으로써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선학과 필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복군과 미국 OSS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전개 및 변천, 민족운동사적 의의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4) 金光載, 『韓國光復軍의 活動 硏究 -美 戰略諜報局(OSS)과의 合作訓練을 중심으로-』,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9.

2. 한미공동작전의 전개와 변천

1) 한미공동작전의 추진 배경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전시수도 重慶에서 臨政의 국군으로서 창설된 韓國光復軍은 처음부터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에 참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5] 먼저 임정은 그 동안의 中國國民黨政府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향하여 적극적인 임정승인 및 戰時參戰外交를 전개하였다. 임정은 연합국 특히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미국과의 합작을 중시하였다.[6]

임정 및 광복군과 미국의 합작에는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중국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의 한국광복군에 대한 통제를 명문화한 '9개준승'은 그 폐단이 일찍부터 임정 내부에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연합국과의 본격적인 합작을 위해서도 이의 개정 또는 폐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7]

다만 중국 국민당정부와는 임정 및 광복군이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기존관계의 현상유지에 그치고자 하였다. 임정은 미국과의 합작이 대일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한국에 돌아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미국측으로 기울고 있었다. 중국 국민당정부와의 몇 년에 걸친 힘든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1944년 8월 '9개준승'이 취소되었다. 그후 1945년 5월 초에는 광복군이 임정의 군대임을 명

---

5)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東京 : 原書房, 1967, p. 740.

6) Kim Ku → Syngman Rhee, 1944. 9. 21(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5, 臨政篇 X, 1994, pp. 430-431).

7)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1, 1971, pp. 248-249.

문화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 광복군의 지휘권이 임정에 귀속된 것은 OSS와의 합작훈련 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8]

한편, 미국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전의 한국 문제 '不提起' 원칙을 폐기하고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미국정부는 해외의 한인독립운동세력, 특히 중국 내의 임정, 또는 미국내 한인독립운동세력의 대일전 수행에의 참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미국정부는 임정의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임정을 독립운동가들이 임의로 만든 단체로 간주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9] 그러나 1945년에 들어가 대일전 승리가 임박하자 미국정부의 3성조정위원회(SWNCC)는 막 창설된 국제연합(UN)의 대의명분과 일제의 압박하에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약소민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일본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한인들로 구성되는 '전투부대' 창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정부는 '한인전투부대'의 창설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中國戰區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Wedemeyer)에게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웨드마이어는 중국에서의 대규모 한인부대 창설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미국정부에 통보함으로써 한인부대 창설계획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10]

다만 중국전구 미군사령부는 중국내 한인들을 대일첩보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OSS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주중 OSS는 한국으로의 첩보침투를 목표로 하여 광복군과의 합작을 서둘렀다. 사실 OSS는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중국에 진출, 華北·滿洲·韓國을 거쳐 최종적으로 日本에 첩보요원을 침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日本帝國'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유일한 '非일

8) 김광재, 앞의 논문, p. 25.

9) 鄭容郁, 『1942~47年 美國의 對韓政策과 過渡政府形態 構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pp. 51-52;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 492.

10) 'SWNCC 115-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1945. 4. 23(申福龍 편, 『韓國分斷史資料集』 5, 원주문화사, 1993, p. 76).

본인'으로서 한인들이 그 임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한 OSS는 태평양전쟁 초기부터 대일첩보활동에 한인들을 동원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복잡한 정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OSS를 비롯한 10여 개에 이르는 미국 정보기관의 격렬한 주도권 경쟁, 중국정부의 한인독립운동세력에 대한 통제강화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44년 10월 중국주둔 미군사령관 스틸웰(Joseph Stilwell)이 蔣介石과의 불화로 웨드마이어로 교체되고 유럽의 대독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OSS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11] OSS도 태평양에서의 미군의 북진에 맞추어 중국 화북지방·만주·한국, 최종적으로는 일본 본토를 향한 대일첩보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하루빨리 한반도로 침투하여 적정보를 수집하고 적후방을 교란하여 연합군의 상륙에 배합하려는 광복군과 OSS는 서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1945년 초부터 합작훈련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2]

광복군과 OSS의 합작교섭과정에서 임정은 미국의 OSS와 광복군의 합동작전을 정부차원으로 공식화하고자 하였고, 이를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임정승인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OSS는 임정의 요청을 회피하거나 군사합작과 임정승인 문제를 분리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⑵ 한미공동작전의 전개

광복군 第2支隊의 한미공동작전은 제2지대장 李範奭이 미국 OSS의 비밀

11) Maochun Yu, *OSS IN CHINA: Prelude to Cold Wa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 264.

12) 김광재, 앞의 논문, p. 54.

첩보과 책임자 싸전트(Clyde B. Sargent)와 교섭한 결과 1945년 4월 임정과 중국전구 미군총사령부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게 되었다.[13] 1945년 5월부터 西安 杜曲의 광복군 제2지대에서 이른바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을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고 이범석과 싸전트가 양측의 지휘관으로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진행하여 갔다. 그리고 임정과 광복군총사령부는 이범석에게 합작훈련에 전폭적인 후원을 보냈다. 또한 OSS측도 자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정승인을 유보하였지만 유능한 한인요원의 확보나 한반도에 대한 첩보침투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임정이나 광복군의 협조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밀접해졌다.[14]

합작훈련 제1기 훈련생으로는 학병출신들과 기존의 제2지대 대원들에서 50명의 적격자들이 선발되었다. 주된 훈련내용은 장차 한반도에 침투해서 적의 중요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무전으로 중국으로 타전하기 위한 첩보훈련과 통신(무전)훈련이었다. 그 밖에 일본에 대한 심리전 기술, 연합군의 공중폭격이나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상학교육도 강조되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50명 가운데

---

13)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Prepared by SI Branch, OSS, CT, 1945. 2. 24(국편, 앞의 자료 22, pp. 243-272). 이 문서는 광복군과 OSS의 한반도 침투작전계획의 전모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전구 OSS 비밀첩보과에서 근무하던 싸전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계획의 작성자(this writer)는 지난 3년 동안 임정 및 한인단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으며…", "1945년 1월 이범석 장군의 초청으로 本 OSS장교(this OSS officer)는 서안 근처의 제2지대 본부를 방문…" 혹은 "本官(this officer)은 이 그룹이 OSS의 훈련과 작전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리고…"(이상의 인용문은 국편, 위의 자료, p. 261)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서는 이범석과의 긴밀한 협의하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 모일간지에 의하면, 이 계획서의 작성자는 중국전구 OSS의 작전장교 윌리암 데이비스(W. P. Davis) 대령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하였다(「미 육군정보전략본부 작성 1급비밀문서 공개」, 『東亞日報』, 1995. 8. 15).

14) 김광재, 앞의 논문, p. 70.

12명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탈락하고 8월초 38명이 약 3개월 과정의 훈련을 수료하였다. 훈련과정에서는 昆明 OSS본부와의 직접 연계 문제, 언어소통 문제, 훈련생들과 교관 사이의 계급의 균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장차 한반도 내에서의 첩보활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안을 공동작전 전개의 주기지로 하는 외에도 山東半島에 '독수리 제2기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15]

1945년 7월부터 安徽省 立煌의 第3支隊에서도 지대장 金學奎와 버치(John M. Birch) 대위의 교섭으로 합작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3지대의 합작훈련은 OSS와 '美 第14航空隊'(American 14th Air Force) 산하 정보기관(A-2)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관계로 서안의 제2지대보다 2개월 늦게 시작되었다. 훈련인원(20명)이나 규모도 서안의 제2지대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16]

중국에서 광복군과 주중 OSS의 합작과는 별도로 워싱턴 OSS본부에서도 1945년에 들어 미국내 韓人들과의 합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의 한인들은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미군에 자원입대하여 대일전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찍부터 미국내 한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OSS 워싱턴 본부의 에이플러(Carl F. Eifler) 대령, 굳펠로우(Preston Goodfellow) 대령 등은 柳一韓·張錫潤 등과 미국내 전쟁포로수용소의 한인포로들을 동원, 태평양 오키나와에서 잠수함으로 한반도에 침투, 첩보전을 수행한다는 '냅코작전(Napko Project)'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가 중국전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전구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웨드마이어는 이 문제를 주중 OSS에 넘겨 검토하게 하였다. 주중 OSS는 냅코작전이 한반도 실정을 정확하게 반

15) 'OPERATION REPORT & EAGLE PROJECT', 1945. 8. 6(국편, 앞의 자료 28, p. 253).

16) 광복군 제3지대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3지대의 합작훈련은 제2지대와는 다른 경로를 거쳐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광재, 앞의 논문, pp. 92-104 참조).

영하지 않았으며 최악의 경우 2개의 작전이 모두 위험하게 된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계획은 중국에서 광복군과 진행하고 있는 작전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거나 독수리작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수리작전과 마찬가지로 작전실행단계에서 해방을 맞이함으로써 냅코작전도 끝나게 되었다.[17]

서안의 광복군 제2지대의 제1기생 훈련이 끝난 직후인 8월 5일, 金九·李靑天·嚴恒燮 등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로 구성된 시찰단은 서안에 가서 훈련생들을 사열하고 격려하였다.[18] 8월 7일 김구는 마침 서안에 와 있던 워싱턴의 OSS 총책임자인 도노반(William J. Donovan) 일행과 회담을 가지고 한미공동작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처를 강구하였다.[19] 이 자리에서 도노반은 한미공동작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임정의 후원을 받아 작전을 조속히 실행하고자 하였다.[20] 도노반의 적극적인 태도에 고무된 김구

17) 방선주, 「美洲地域에서의 韓國獨立運動의 特性」(『韓國獨立運動의 地域的 特性』, 光復節 제48주년 및 독립기념관 개관6주년 기념 제7회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 1993); 방선주, 「아이프러機關과 在美韓人의 復國運動」(『제2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8). 2001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냅코작전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출간하여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NAPKO PROJECT OF OSS: 재미한인들의 조국 정진 계획』). 또한 이 자료집에는 정병준의 자세한 해제가 참고된다.

18) 「最近의 臨政動態」, 未詳 → 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1945. 8. 15(秋憲樹 편, 앞의 자료, p. 406); 대한매일신보사 편, 『白凡金九全集』 7, 대한민국 임시정부 Ⅳ, 1999, p. 567. 시찰단은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중경에서 모집된 OSS훈련을 위한 제2기 훈련생 후보 1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19) 『大韓民國臨時政府 議政院文書』, p. 557. 1945년 8월 21일 오후 의정원에 출석한 김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보고하였다. "… 그러고 다음날은(8월 7일-인용자) 西洋 사람(도노반을 가리키는 듯-인용자)이 나를 좀 보자고 하기에 갔는데 들어가며 보니 自己네 앉은 켠은 美國 國旗를 띄웠고 우리 앉은 자리는 조선기를 띄웠습디다. 그런데 자리는 매우 융성합디다. 그런데 그의 말이 '앞으로 우리 정부와 당신네의 政府가 절실히 일하여 나가자고' 합디다. 그리하야 나의 말이 그것이 卽 내가 말할 것인데 당신이 먼저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좀 있다 점심도 못먹고 나오는데 거기도 태극기와 미국기가 띄워 있고 나오는데는 모두 활동사진 기계를 가지고 찍읍디다."

20) 'Morale Operations for Korean Targets', Evans → Roland Dulin, 1945. 8. 9(국편,

는 회담후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 지속적인 한미합작을 요청하였다.[21]

(3) 국내진공작전의 실시

8월 9일, 서안 일대에 일본이 곧 항복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날밤 서안 두곡 제2지대 본부에서 이청천·이범석 등 광복군 수뇌부는 한미공동작전의 미국측 책임자인 싸전트와 긴급회담을 갖고 미군의 한반도 상륙시 광복군도 투입한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종전을 앞둔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의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안은 며칠 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미처 구체화되지 못하였다.[22]

한편, 8월 9일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한 임정과 광복군은 한미공동작전 대원 및 제2지대 대원을 중심으로 약 100명에 달하는 '國內挺進軍'을 편성하여 한반도 진입을 서둘렀다.[23] 그러나 정진군의 국내진입은 좌절되고 대신 해방 다음날인 8월 18일 선발대라고 할 수 있는 '挺進隊'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범석 지대장 이하 4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광복군 정진대는 OSS측 미군사절단과 함께 한반도로 진입하였다.[24]

앞의 자료 28, p. 275).

21)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1945. 8. 18(국가보훈처 소장자료).

22) Sargent→Helliwell, 1945. 8. 10(국편, 앞의 자료 23, pp. 204-205). 이 자료는 싸전트가 회담에서 협의된 내용을 헬리웰 대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회담의 분위기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다.

23) 國家報勳處, 『北美時報(THE KOREAN AMERICAN TIMES)』,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21), 美洲篇③, 1988, p. 240. "서안에 십일 동안 갔다 왔나이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전보내용을 신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뒤의 "일간 중경으로 귀환하겠소"라는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김구는 이 전보를 보내고 난 다음날인 17일 서안을 떠나 成都로 갔다. 『독립운동사』 6, p. 500.

24) 'Preliminary Report of Mission to Keijo, Korea, for the Relief of War Interned in that Country', Bird→Heppner, 1945. 8. 23(국편, 앞의 자료 23, p. 267). 이 보고서

이들의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임무는 한반도의 연합군 전쟁포로를 구호하고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이면의 실제적인 임무는 한반도에 진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중요문서를 압수하며 미군이 정식으로 진주할 때까지 그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에 편승한 한국광복군 '挺進隊'의 임무는 임정과 광복군이 정식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내와 임정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8월 18일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도착한 광복군 정진대와 미군사절단은 일본군의 위협으로 다음날 8월 19일 어쩔 수 없이 다시 중국 서안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25]

이즈음 한국이 중국전구 관할에서 태평양전구로 변경되고 미군이 곧 한반도에 상륙하게 됨으로써 광복군이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다시 한반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西安으로 귀환한 광복군과 OSS팀은 명령대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작전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한편, 이범석 등은 중국전구 미군과 OSS, 맥아더사령부에 작전을 지속할 것과 임정 및 광복군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였다. 즉, 그는 광복군이 한국 국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대로서 큰 가치가 있으며 소련 점령지역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OSS측에서도 광복군과의 합작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OSS 자체가 1945년 10월 1일 해체되면서 광복군과 OSS의 공동작전도 이와 종말을 같이 하게 되었다.

에 이들 22명(광복군 4명, 미국인 18명)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범석은 이때 한국에 파견되었던 독수리팀의 규모가 미군을 포함하여 45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李範奭, 「光復軍」, 『新東亞』, 1969년 4월호, p. 201).

25) 『大韓民國臨時政府 議政院文書』, p. 558. 의정원에서 김구는 중국으로 되돌아온 광복군 정진대가 "(일제가-인용자) 投降籤子하면 또 갈 것"으로 보고하였다.

3. 한미공동작전의 의의

(1) 임정의 대일군사활동과 한미공동작전

해방 직전 임정 및 광복군의 활동 가운데 OSS와의 한미공동작전과 국내 진입 시도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19년 임정은 수립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대규모 정규전의 전개를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다만 이러한 목표의 실천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이유,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의 결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1940년 9월, 임정 산하에 정부군으로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임정은 임정과 합작하기 위하여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정보기관인 OSS와의 합작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국민당정부와 체결한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연합국에 대한 參戰外交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1945년 5월부터 곧바로 한미공동작전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정과 광복군은 미국과의 합작을 정부나 단체간의 공식적인 합작으로 끌어올리고자 시도하였다. 일찍이 미국무성은 OSS에게 한인과의 합작시 이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26] 따라서 OSS도 합작교섭 과정에서 광복군을 개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광복군은 그것을 기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임정 및 광복군의 협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문이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임정 및 광복

26) McCune → Berle, 1944. 7. 31(미 국무성, 『미 국무성 한국관계 문서(1941~1944)』 Ⅳ, 원주문화사, 1993, p. 324).

군은 이전의 중국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경험하였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고 주체성을 견지하기 위해 훈련대원들의 정훈교육은 광복군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훈련과정에서도 광복군 제2지대 지대장 李範奭과 미국측 책임자가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여 긴밀한 공조체제하에서 훈련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27] 물론 현실적으로는 OSS가 자금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측의 의지가 보다 결정적인 변수였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서 한미공동작전을 진행했다. 또한 OSS가 임정이나 광복군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실체는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1945년 8월초 임정의 김구 주석과 OSS의 총책임자 도노반이 회담을 개최한 사실은 그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한미공동작전을 통하여 임정 및 광복군의 대일전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임정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임정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정부 혹은 주중 미군사령부에게 한인의 대일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1945년에 접어들면서 미군의 필리핀 점령, 특히 6월말 오키나와 점령으로 임정요인들은 한반도 상륙작전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정은 광복군을 태평양지역에서 북상하고 있는 미군에 파견하여 한반도 상륙작전시 배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임정 주석 김구는 미국정부에게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하면 모든 한국인들을 지도하여 대일전에 협조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28] 이러한 제의는 임정 및 광복군이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OSS와의 합작을 통해 임정 및 광복군은

27) 'Monthly Report for June, Eagle Project', Sargent→Helliwell, 1945. 6. 29(국편, 앞의 자료 28, p. 112).

28) 「抄韓情近報」, 賀國光→吳鐵城, 1945. 7. 25(대한매일신보사 편, 『白凡金九全集』 5, 대한민국 임시정부 II, 1999, p. 649); 「最近의 臨政動態」, 1945. 7. 25(秋憲樹 편, 앞의 자료 1, p. 405).

제2차 세계대전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정 및 광복군이 미국 OSS와 합작하여 한국 내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가 영국군과 합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직전 광복군이 거둔 귀중한 성과였으며, 한국독립운동의 활동범위나 합작대상국을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심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29]

더욱이 한미공동작전은 일본패망후 解放政局에서의 임정, 특히 韓獨黨의 정치기반 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한미공동작전을 통해 대일전 참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조기에 국내로 진입하여 장차 임정의 활동기반을 만든다는 측면도 있었다. 일제패망후 국내에서의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는 대일전 참전만큼이나 절실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연합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대일전의 추이는 임정에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정으로서는 하루빨리 한반도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임정 및 광복군의 OSS와의 합작경험 혹은 인적관계는 8·15 이후 중국관내지역 일본군 내의 한국적 장병들을 광복군으로 編入·擴軍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임정 및 광복군 지도자들이 미국정부의 방침으로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으나 미군정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 인식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한미공동작전이 임정과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합작이 아니라 OSS라고 하는 미국정부 기관과의 소규모 합작이었으며 또한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 해방을 3~4개월을 앞두고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임정 및 광복군 자체 역량의 한계이기도 했지만 미국정부의 임정 불승인 원칙의 고수 및 한인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정 및 광복군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도 크게

29) 金昌洙, 「大韓民國臨時政府의 軍事活動」, 『한민족독립운동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0, p. 342.

작용하였다.

(2) 임정의 참전외교활동과 한미공동작전

태평양전쟁 발발후 임정의 지상목표는 연합국으로부터 승인받고 그 원조를 얻어 교전단체의 하나로 대일전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적 여건은 임정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한인독립운동 단체의 분열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인독립운동 진영의 역량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임정의 승인요청에는 시종일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30]

반면 중국 국민당정부는 임정 및 광복군에 통제를 가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임정의 승인을 요청하는 등 일관성없는 對韓政策을 펴고 있었다.[31] 중국정부는 한인으로 구성되는 전투부대 건설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만 反日이라는 정치적 선전효과를 위한 제한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었다.[32] 이는 미국정부도 마찬가지였다.[33]

임정 및 광복군과 OSS의 한미공동작전에 대한 교섭은 태평양전쟁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정 및 광복군이 1945년에 가서 한미공동작전을 성사시키게 되기까지는 안팎의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외부의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였다. 중국 국민당정부가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강요한 '9개준승'은 임정 및 광복군이 연합국과 합작하고자 하는 시

30) Department of State, U.S.,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1947. 1950. 1951(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정책(1834-195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p. 71).

31)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역사비평사, 1995, p. 130.

32) 廉仁鎬, 『朝鮮義勇軍 硏究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 297.

33) 'SWNCC 115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1945. 4. 23(申福龍 편, 『韓國分斷史資料集』 5).

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측 태도는 광복군 印緬戰區 工作隊 파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즉, 중국정부는 광복군의 추가 인도 파견을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이미 인도에 파견된 대원들에게는 인도에 있는 영국(군)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34]

'9개준승'으로 대표되는 중국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고자 했던 임정의 노력은 연합국과의 합작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독자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도 전후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려 한다는 국제여론의 악화, 임정을 위시한 한인들의 반발, 전후 한반도에 親中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에서 광복군의 지휘권을 임정에 되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정부는 임정 및 광복군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고 韓人戰鬪部隊의 조직을 통한 대규모 동원에는 소극적이었다.[35] 이에 임정은 임정과 합작하기 위하여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정보기관인 OSS와의 합작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광복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三民主義를 강요하면서 전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하던 중국 국민당정부와 체결한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연합국에 대한 參戰外交에 힘을 기울였다.

더욱이 1945년 5월 1일, 임정과 중국정부의 새로운 협정에 의한 광복군 통수권의 임정 귀속은 임정 및 광복군 활동의 폭을 그만큼 넓혀 주었다. 그럼으로써 이날 임정 주석 金九, 外交部長 趙素昻이 중국전구 미군사령부를 방문하여 미군의 임정과의 합작시 더 이상 중국측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거나 광복군 총사령부 禮堂에 걸려 있던 중국의 靑天白日旗를 끌어내릴 수 있었다.[36] 심지어 5월 중순 임정내 親中人士였던 閔石麟

34) 'Chinese Treatment of the Koreans', John S. Service → Assistant Chief of Staff, G-2, 1944. 6. 7(『미 국무성 한국관계 문서』 Ⅳ, p. 306).

35) 'SWNCC 115 -Utilization of Koreans in the War Effort', 1945. 4. 23(『韓國分斷史資料集』 5, p. 76).

36) 「韓美關係와 臨政의 最近動態」, 未詳 → 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1945. 5. 5(秋憲樹

이 중국국민당을 찾아가 중국과 미국의 광복군 원조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對韓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실은 OSS와의 합작추진 이후 임정요인들의 자신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37]

사실 임정 및 광복군은 광복군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隷屬'을 벗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연합국과의 군사합작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OSS도 중국 내 한인들과의 연대를 꾀하였다. 그 결과 일단 중국의 '예속'을 벗어나게 된 1945년 5월부터 곧바로 OSS와의 한미공동작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공동작전은 1945년에 들어가 갑자기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미공동작전이 광복군이 중국정부의 예속을 벗어나던 1945년 5월부터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미공동작전은 임정이 중국일변도의 외교관계를 탈피하고 미국 등 연합국과 보다 다양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한미공동작전 교섭과정에서 중국정부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기관을 통하여 합작을 위한 교섭 및 이후 훈련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측 관련인사들은 광복군이 중국의 원조로 '대략적인' 규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공동작전이 실시되면서부터는 미군의 원조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하기도 하였다.[38] 심지어 임정이 남경의 汪精衛 괴뢰정권에 의해 조종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중국 정보기관의 우두머리 戴笠은 李範奭을 불러 광복군측에게 한미공동작전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였다.[39]

당시 임정은 합작상대로서 중국보다는 미국에 크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편, 앞의 자료, p. 432).

37) 「中國援助政策에 關한 意見」, 1945. 5. 14(秋憲樹 편, 위의 자료 1, pp. 693-694).

38) 「最近의 臨政動態」, 中國軍事委員會→吳鐵城, 1945. 5. 23(秋憲樹 편, 앞의 자료 1, p. 403); 『白凡金九全集』 7, p. 683.

39) 'A Visit from the British Military Mission', Sargent→Krause, 1945. 5. 26(국편, 앞의 자료 22, pp. 619-620).

중국정부와의 관계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측과는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40] 이는 임정 및 광복군이 당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해방 직전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는 광복군을 파견하여 미군의 한반도 상륙시 함께 국내에 진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대일전 참여, 그를 통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임정의 독립운동진영 통합과 한미공동작전

3·1독립운동을 거쳐 성립된 임정은 전 민족적 독립운동지도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그후 내부갈등 등으로 수많은 군소 독립운동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40년대에 들어가 중국국민당 지역에는 임정, 延安 및 太行山 일대의 중국공산당 지역에는 朝鮮獨立同盟, 소련 영내에는 만주빨치산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밖에 美洲에는 임정과 연계를 맺고 있던 독립운동세력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建國同盟이 활동하고 있었다.

일제의 패망이 임박하면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세력들은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정은 국내외의 독립운동진영을 임정 산하에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1945년 임정이 獨立同盟에 張建相을 特使로 파견한 것,[41] 만주의 항일무장세력과의 연계를 계획하여 李忠模를 파견하기도 하였다.[42] 또한 국내의 建國同盟도 연안의 독립동맹에 연락원을 파견하고 임정과도 연계를 모색하였다. 건국동맹은

---

40) Kim Ku→Syngman Rhee, 1944. 9. 21(국편, 앞의 자료 25, pp. 430-431).

41) 李庭植 面談, 金學俊 編輯·解說,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pp. 209-211.

42) 김종항·안우생, 「남북연석회의와 백범 김구선생을 회고하여」(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대출판부, 1997, p. 289에서 재인용함).

독립동맹 산하의 朝鮮義勇軍, 임정의 광복군과 연합작전을 시도하려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건국동맹은 1945년 4월 崔謹愚를 北京에 파견하여 중경 임정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呂運亨도 1945년 5월 이후 국내에서 탈출, 독립동맹·임정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외 단체들의 연대연합을 시도하고자 했다.[43] 물론 여운형의 이러한 시도는 정세의 급변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태평양전쟁 말기 국내외 한인독립운동단체들이 반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중요한 시도였다.

임정 및 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이 가지는 의미는 이것이 국내외의 한국독립운동진영의 통합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외의 독립운동진영은 상호간의 연락이 매우 힘든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OSS의 협조하에 보다 밀접한 상호연락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 또한 독립동맹은 연안에 주재하고 있던 美軍事顧問團의 OSS요원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OSS도 華北地方의 八路軍 및 독립동맹 산하의 朝鮮義勇軍 대원들을 활용한다는 '華北諜報作戰'(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44]을 계획하였다.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더라면, 임정이 독립동맹과 제휴하고 항일연합전선을 펴는데 OSS가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임정은 金性洙·宋鎭禹 등 국내의 우파세력과도 연계를 모색하였다. 특히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회고록에서도 나타나듯이, 임정은 김성수·송진우 등 보수계열과의 연계를 도모했다.[45] 일제의 패망이 1946년 말로 예상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었다. 즉, 작전이

43) 李萬珪, 『呂運亨先生鬪爭史』, 民主文化社, 1946, pp. 173-174; 정병준, 「朝鮮建國同盟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0, 1993, p. 131.

44) 'NORTH CHINA INTELLIGENCE PROJECT', Draft proposal for a major OSS secret intelligence operation in North China and from North China into Manchuria and Korea prepared by Lieut.(sg) Guy Martin, Dr. Charles B. Fahs, Major Phillip K. Crowe, Major Joseph E. Spencer, Lieut. Thomas J. Davis, OSS New Delhi, India, 5 Jan 1945(국편, 앞의 자료 22, pp. 695-721).

45) 金俊燁, 『長征』 1, 나남, 1990, p. 430.

더 지속되었더라면 한국 독립운동진영은 국내외적으로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은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컸다.

더욱이 임정 및 광복군과 OSS의 한미공동작전은 미주지역 독립운동진영과는 밀접한 연계하에 진행되었다. 중국의 임정 및 광복군의 존재를 OSS에 가장 먼저 부각시킨 것은 임정 駐美外交委員部의 李承晩이었다.[46] 이승만의 노력에 힘입어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이미 OSS가 중국의 임정세력을 대일특수전에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張錫潤이 파견되어 태평양전쟁으로 연락이 끊어진 重慶 임정과 워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를 잇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47] 게다가 미국의 OSS본부는 미주지역의 한인을 활용한다는 '냅코작전'(Napko Project)을 수립하였는데,[48] 중국 및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진영이 더욱 밀접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4. 맺 음 말

1919년 임정은 수립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대규모 정규전의 전개를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다만 이러한 목표의 실천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이유,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적 토대의 결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0년 9월, 임정 산하에 정부군으로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이러한 과제

46) Clarence N. Weems, "American-Korean Cooperation(1941-1945): Why Was It So Little and So Late?"(A Paper submitted to Columbia University Seminar on Korea, February 20, 1981).

47) 張錫潤, 「나의 回顧錄」, 『江原日報』, 1974년 1월 31일.

48) 'THE NAPKO PROJECT',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FIELD EXPERIMENTAL UNIT, March 30, 1945(국편, 앞의 자료 22, p. 423).

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임정 및 광복군은 대일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중국이나 미국정부는 그 역량을 낮게 평가하고 韓人戰鬪部隊의 조직을 통한 대규모 동원에는 소극적이었다. 임정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복군이 미군 등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을 폐기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하였으며 동시에 연합국에 대한 參戰外交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45년 5월 1일, 새로운 협정에 의해 광복군 통수권이 임정으로 귀속되었으며, 이는 임정 및 광복군 활동의 폭을 그만큼 넓혀 주었다. 이날 임정 주석 金九, 外交部長 趙素昻이 중국전구 미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임정과 합작을 원할 경우 더 이상 중국측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1945년 5월부터 OSS와의 공동작전도 실시될 수 있었다.

미국과의 반일공동전선 구축은 OSS를 매개로 하여 시작되었다. 원래 미국정부는 OSS에게 한인과의 합작시 이들을 개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OSS도 합작교섭 과정에서 광복군을 개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은 단체간의 대등한 수준의 공동작전으로 한 차원 끌어올렸다. 그렇게 된 데는 OSS가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임정 및 광복군의 협조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도 작용하였다.

훈련과정에서도 광복군 제2지대 지대장 李範奭과 미국측 책임자가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여 긴밀한 공조체제하에서 훈련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광복군측은 훈련장소, 인원, 대일정보, OSS는 자금 및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한미공동작전을 진행했다. 물론 OSS가 임정이나 광복군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1945년 8월초 임정 주석 김구와 OSS의 총책임자 도노반의 회담 개최는 그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임정

및 광복군은 이전의 중국군으로부터 삼민주의교육의 강요라는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훈련대원들의 정훈교육은 광복군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한편 한미공동작전을 통하여 임정 및 광복군의 대일전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임정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임정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정부 혹은 주중 미군사령부에 한인의 대일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1945년에 접어들면서 미군의 필리핀 점령, 특히 6월말 오키나와 점령으로 임정요인들은 한반도 상륙작전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정은 광복군을 태평양지역에서 북상하고 있는 미군에 파견하여 한반도 상륙작전시 배합하고자 시도하였다. 김구 주석은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할 경우 그곳에서 모든 한국인들을 지도하여 대일전에 협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임정 및 광복군이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OSS와의 합작을 통해 임정 및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함께 반일공동전선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정 및 광복군이 미국 OSS와 합작하여 한반도내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가 영국군과 합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직전 광복군이 거둔 귀중한 성과였다. 나아가 한국독립운동의 활동범위, 합작대상국을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적으로 심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미공동작전이 비교적 작은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차적으로 임정 및 광복군 자체 역량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미국정부의 임정 불승인 원칙의 고수 및 개별적인 한인 활용방침,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정 및 광복군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요컨대, 임정 및 광복군과 OSS의 합작경험은 일제의 한국강점 이후 韓·美 양측간에 전개된 최초의 조직적인 접촉이기도 하였다. 또한 더나아가

오늘날의 韓美關係를 바라보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04. 6. 30, 심사완료일 : 2004. 8. 10)

주제어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미전략첩보국, 한미공동작전, 독수리작전, 냅코작전

KCI

<ABSTRACT>

KIA(韓國光復軍)'s Independent Activities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Focusing on the Korea and America's Cooperation-

Kim, Kwang-jae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background, the origin, the development, and the cooperation system in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KIA: 韓國光復軍) and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in China. Also, I will outline and review the full context, meaning, and limits of the Cooperation.

The KIA was founded on September 17, 1940 in Chungking(重慶). At that time, the Chinese Provisional Capital during Japanese Invasion at World War II was located at Chungking. The KIA was attached to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大韓民國 臨時政府). The KIA's top objective was to participate in the Allied armie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he KIA and OSS's military exercise at the KIA's Second Detachment was finally accepted by the upper American Military Commander in China. In May 1945, the KPG had started the so-called "Eagle Project" in Xian(西安), China. This project aimed at educating the military intelligence personnel. Also, the KIA and OSS founded the Korean-American Joint Command at the KIA's Second Detachment.

On the while, after the first Korean disciplines had been educated at the OSS, on August 5, the KIA's leaders went to exercise camps to survey and

encourage the disciplines. And on August 7, Kim Ku(金九), the KPG's chairman, met the OSS's General William J. Donovan and his members to discuss impending projects called the "Eagle Project" and requested again that the project should be implemented quickly. Donovan had consideration of Kim Ku's request and admitted that the project would be implemented at on earlier time. After receiving an optimistic response by Donovan, Kim Ku, in long letters, asked US President Truman to consider the project.

On August 9, in Xian, China, a rumor that Japan would soon surrender to the Allies had spread. That night, in Xian, the KIA's main officials asked Donovan to permit all the KIA's authorities passed into the US military to participate in the impending Korean Peninsular landing project. But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as never accomplished because a few days later, Japan gave up.

Key Words :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orean Independence Army,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Korea and America's Cooperation, Eagle Project, Napko Project

KCI